

# “진상조사위에 강제조사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해야”

## 국회 5·18특별법 공청회

국회 국방위원회의 6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무난하게 치러져 법안 처리 전망을 밝게 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자유한국당이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면서 국방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됐다.

이날 공청회는 여야 간 큰 대립 없이 순

## 여야 대립 없이 무난히 진행...국회 통과 전망 밝아져

### 한국당 일부 의원들 조사위 구성 공정성 문제 제기

조롭게 진행됐다. 다만,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구성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제출 법안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15인으로 구성하되 국회 추천 8인, 대통령 추천 4인, 대법원장 추천 3인으로 지명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범여권 인사가 11명이나 되고 야당은 고작 4명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여당 측은 수용할 태도를 보였다.

공청회에서는 또 진상조사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국회위에 계류된 5·18 특별법안은 5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각 1건,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2건의 법안을 발의해 함께 심사돼왔다. 이들 법안은 과거에 다 밝히지 못한 5·18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점에서 대동소이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국민의당이 추천한 진술인인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특별법안) 모두 수사권과 기소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사권한의 강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일부 있다고 해도 부족하다”며 “고발과 수사요청 조항조차 없다면 무기력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추천한 진술인인 안종철 현대사회연구소장은 “발포명령자 확인, 지휘권 이원화, 실종자 확인과 압매장지 발굴, 헬기 사격, 전투기 폭격 대가 등의 진상규명은 아직 이뤄지지 못했지만 국가가 책임 있

게 편찬한 국가보고서가 없어서 왜곡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5·18 특별법이 필요하고,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가 설립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국가기관의 집단적·조직적인 인권 침해 등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위원회의 구성, 조사 항목 부분 이런 것은 전체회의에서 의견이 통일되면 가는 것이 꼭 나쁘지는 않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설 조사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 한국당 이종

명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대안을 보면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를 ‘북한군 개입 여부’로 하고 진상을 규명해 지속해서 발생해온 논란의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 팩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국방위 관계자는 “5·18 특별법안은 국방위를 무난히 통과하지 않을까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이 법안이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교섭단체 구성·지방선거 선전 여부가 운명 가른다

### 공식 출범 민평당의 앞날

### 캐스팅보트 확보 여부 촉각 민주당과 연대·연정 전망도

민주평화당(민평당)이 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당장 원내교섭단체 구성, 6월 지방선거 선전 등이 민평당의 운명을 좌우할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

우선 민평당은 국민의당을 탈당한 지역구 국회의원 15명을 창당 멤버로 첫발을 뒀다. 비록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애초 예상보다 많은 의원을 결집해 냈다는 평가다.

여기에 국민의당 비례대표인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의원 3명은 ‘자진 탈당 시 의원직 상실’ 규정 때문에 합류하지 못했지만 의정활동은 민평당과 함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여기에 아직 정치적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국민의당 손금주·이용호·박선숙 의원까지 고려하면 민평당이 동원 가능한 의석이 18~20여 석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평당은 신(新)4당 체제의 역학 구도를 잘만 활용하면 캐스팅보트를 충분히 쥌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야당으로서의 스탠스를 지키면서도 정부·여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면서 긴밀하게 대의(對義) 관계를 설정하는 등 기존의 국민의당과는 다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가운데, 호남을 대변하는 대안세력으로서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민평당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창당 전에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평당의 지지율은 아직 5%대 아래를 맴돌고 있다.

중진 의원들이 총대를 메야하는 상황이지만 교섭단체 구성 등 의석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 여의치 않다. 결국 과감한 신진 인사 영입과 호남에서의 경쟁 체제 구축 등 새로운 비전 제시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평당이 결국 독자 생존하기보다는 여당인 민주당과 연대하거나 연정 수순으로 나아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여소야대 국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평당의 협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양당이 개혁·진보 세력의 ‘한 뿌리’라는 동질감이 있는 만큼 통합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선전을 거두지 않는다면 민평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정치적 자생력이 민평당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창당대회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 ‘무늬만 국민의당’ 비례대표 3명 민평당 당직 맡을 듯

### 선거대책위원장 김경진

### 사무총장에 정인화 의원

민주평화당은 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조배숙 의원을 초대 당 대표로, 장병완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했다.

이에 앞서, 민평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임시 의원총회를 열고 지방선거를 총지휘할 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 김경진 의원을, 사무총장에는 정인화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고위원으로는 김경진 의원과 윤영일 의원, 배준현 전 국민의당 부산시장위원장 등 3명이 추천됐다. 지방직 최고위원 등은 향후 영입인사,

추가 합류 의원 등을 위해 비워두기로 했다. 대변인은 최경환 의원이 계속 맡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내 반(反)통합파로 분류된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등 비례대표 3명의 민평당 당직을 맡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들은 이미 국회 표결 등 각종 의정 활동에서 민평당과 단일대오를 유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민평당 최경환 대변인은 “당헌에 ‘비당원 특례조항’을 뒀다. 당적이 없는 사람이거나 다른 당적을 갖는 사람도 당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민평당에 합류할 수 있도록 제명을 해달라는 압력으로

풀이된다. 비례대표의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자진 탈당을 해서는 안 되며 당에서 제명을 당해야 한다.

당장 민평당 내부에서는 국민의당 반통합파 비례대표 의원들이 민평당의 정책 위, 연구원, 공보실 등에서 주요 보직을 맡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상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제 의사와 관계없이 (반통합파) 비례대표 의원들이 (민평당의) 중요한 당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며 “아직 국민의당 소속이 아니냐는 질의에 ‘의미가 없다. 그냥 무늬만 국민의당’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결연한 의지 높게 평가” “야당 역할 제대로 해달라”

### 여야 민평당 창당 엇갈린 반응

여야는 6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집단 탈당에 민주평화당(민평당)을 공식 창당한 것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창당 정신을 실천하는 정치를 주문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2중대’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분당 과정에서 민평당 의원들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국민의당은 “착잡하다”면서 정부·여당을 위한 무조건적인 거수기까지 되지 말라며 견제구를 날렸다.

국민의당과 통합신당 미래당 창당을 눈앞에 둔 바른정당은 ‘정당의 창당은 의미 있는 출발’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우선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평당의 협조를 기대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치와 비전이 맞지 않는 보수정당과의 무분별한 이합집산을 반대하고, 국민의당 창당 이념과 정신을 지키려는 민주평화당 구성원의 결연한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태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당이 실패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시작은 야당, 끝은 여당’,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며 “(민평당은)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당부의 말을 전하면서 견제도 있지 않았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방문 후 가진 현장 기자간담회에서 민평당 창당과 관련해 “통합을 이루는 과정이 당 대표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전 당원의 뜻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착잡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행자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축하의 말보다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야당다운 야당으로 진짜 개혁에 함께 앞장서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무안공항 출발]

# 일본(기타큐슈, 시라하마, 돗토리), 다낭 직항 전세기

2018년의 시작을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쭈우욱~~~

### 무안 ↔ 일본 기타큐슈(야마구치)

주 3회 출발 / 화요일(3박4일) 금, 일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1:00)

**[특가상품(일요일 출발)]**  
 북큐슈 특급호텔 1박+온천펜션 1박 **499,000원**~  
 북큐슈(벳부, 후쿠오카, 기타큐슈)  
 ...**[실속]** 579,000원 ~ **[폭격]** 749,000원~  
 야마구치(하기, 기타큐슈, 시모노세키)  
 ...**[실속]** 699,000원 ~ **[폭격]** 769,000원~  
**설 연휴 매일 출발합니다.[2/14(수)~2/20(화)]**  
**[폭격] 북 큐 슈 998,000원**~  
**[폭격] 야마구치 998,000원**~  
**아마가세 온천별장 699,000원**~

### 무안 ↔ 시라하마(와카야마, 오사카)

2018. 1. 5(금) ~ 1. 26(금)

주 3회 출발 / 일요일(3박4일) 수, 금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3:00) → 시라하마(14:40) / 시라하마(15:30) → 무안(17:10)

**[특가상품(수요일 출발)]** 와카야마, 오사카, 나라, 교토 **669,000원**~  
**[폭격]** 오사카, 와카야마 **798,000원**~  
**[고폭격]** 오사카, 와카야마, 나라, 교토 **898,000원**~

### 무안 ↔ 돗토리

2018. 2. 15(목) ~ 3. 1(목)

주 3회 출발 / 토요일(3박4일) 화, 목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1:00) → 돗토리(12:20) / 돗토리(13:00) → 무안(14:20)

돗토리(요나고, 마츠에) 3일 **[실속]** 588,000원 ~ **[폭격]** 678,000원 ~  
 돗토리(요나고, 마츠에, 이즈모) 4일 **[실속]** 768,000원 ~ **[폭격]** 828,000원 ~  
**설 연휴 단, 하루! [2/15(목)~2/17(토)]**  
**[폭격] 돗토리, 요나고, 마츠에 3일 1,098,000원**

### 무안 ↔ 다낭 · 후에 · 호이안

2018. 2. 2(금) ~ 5. 18(금)

주 2회 출발 / 매주 화, 금요일 출발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 요금은 준특급호텔 기준

**[실속]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노립·노옵션]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869,000원**~ / 3박5일(금) **969,000원**~  
**[골프] 다낭 GOLF 54홀**  
 3박4일(화) **1,199,000원**~ / 3박5일(금) **1,299,000원**~  
※ 다낭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2억원 영업보장보험 가입업체 대표전화: 062-234-3222

**조이투어** F A X : 062-234-3141

JOY TOUR CO.,LTD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한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등번호2003-1호

● 공통조건: 여행비(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상보험) : 1억원, 국내항공 5만원, 관광진흥법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장보험 가입 / 여행금제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회사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업(관광, 기타/가이드 봉사료, 선박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